

현대불교

불기 2551년 (서기 2007년) 5월 23일(음력 4월 7일) 수요일 (주간)

오늘은
우리가 부처임을 깨치는 날입니다.
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부처님이
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깨쳐
정실정실 춤추는 날입니다.
고운 연등 밝히는 날입니다.
깨침과 나눔의 빛이 온 세상 장엄하는 날입니다.
너도 부처 나도 부처
이 세상 부처 아닌 것 아무것도 없는
오늘은 찬란하는 날입니다.
온 중생이 부처로 다시 눈 뜨는 날입니다.
일체중생의 생일날입니다.

대한불교조계종 한미음선원